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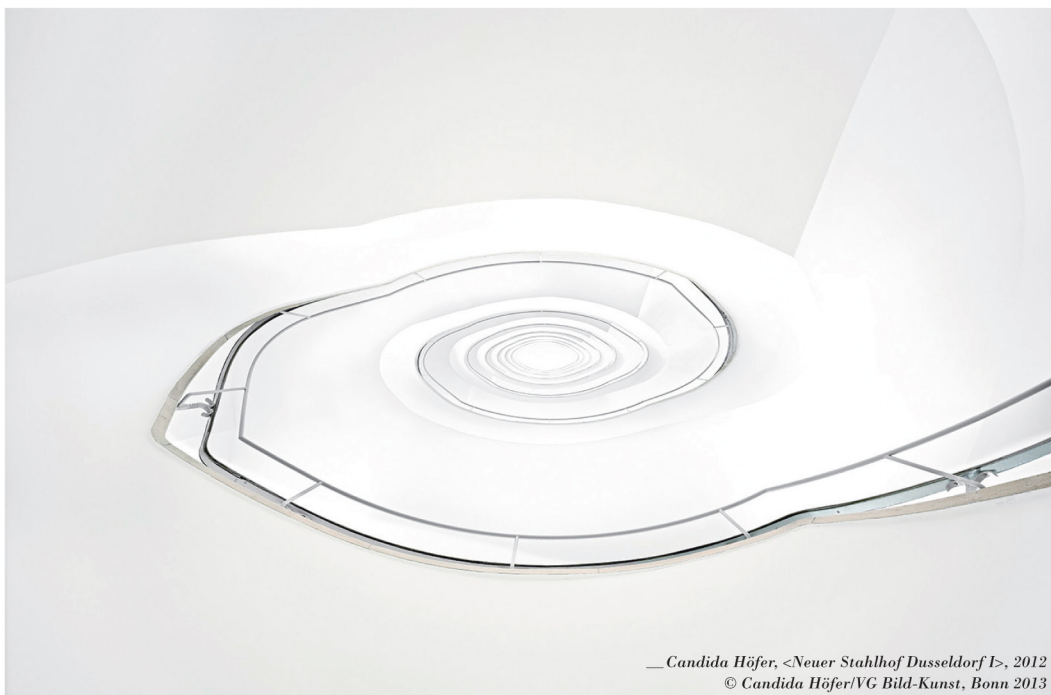
# DUSSELDORF

The Museum Kunstpalast  
14 SEP 2013\_9 FEB 2014

칸디다 회퍼는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건축물 찍기에 투자했는데, 사진의 표정이 하도 무미건조해 스스로의 이야기는 하지 않는 줄 알았다. 쿤스트팔라스트 미술관에서 열리는 전시는 실은, 칸디다 회퍼가 그간 자신의 이야기를 해왔음을 알게 한다. “작품들은 내 과거에 행한 것과 현재에 행하는 것, 그리고 그 변화에 관함이다. 나는 이 도시의 변화를 기록 가능하다 여기지 않는다. 내가 과거의 어떤 공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. 단지 내가 어떻게 이 시간을 지나 변화해왔는지에 대한 반추 과정이다.” 전시에는 오직 뒤셀도르프에서의 시간만 등장한다. 70여 점, 무려 40년이 걸렸다. 40년 전의 그녀를 상상하니, 알 듯하다. 광고 사진 찍던 그녀에게 부 파인더의 또 다른 풍경을 보여준 스승 베른트 베허와 베허 학파의 첫 세대 동료들, 안드레아스 구르스키와 토마스 루프를 만난 시절이다. 칸디다 회퍼의 사진에서 짹짹 흐르는 시간을 들은 경험은 우연이 아니다.



—Candida Höfer, <Benrather Schloss Dusseldorf IV>, 2011



—Candida Höfer, <Neuer Stahlhof Dusseldorf I>, 2012  
© Candida Höfer/IG Bild-Kunst, Bonn 2013